

유럽의 정치적인 결합을 위한 계획은 걸프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비록 경제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조속한 통합을 주창하는 고위인사들은 이제 이 통합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보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걸음마를 하기도 전에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유럽의 공동안보기구 설립은 그동안 계속 주장되어온 목표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방위에 관한 유럽인들의 의견 통일이 있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결여되어 있다.

나토가 생소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 새로운 목적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유럽의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안보를 위해 귀중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부로부터의 의지가 없는데, 위로부터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 일이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위원회 의장인 Jacques Delors씨는 최근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조약에는 어느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게 될때, 다른 나라들이 최대한의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한 西유럽연합(WEU)과 유사한 방위공약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WEU를 유럽공동체(EC)로 통합하고, 나토내에서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이다.

겉으로 보아 이 아이디어는 설득력있게 보인다. WEU는 방위문제를 다룰수 있는 유일한 유럽기구이다. 또 EC는 유럽통합을 위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더욱 복잡하다.

첫번째 난관은 각 기구의 회원국이 다른 점이다. EC의 12개 회원국중 11개국만이 나토에 속해 있다. 아일랜드는 중립을 지키고 있고, 또 NATO와 같은 방위기구에 참가할 능력도 의문시된다.

WEU의 9개 회원국은 모두 나토와 EC에 속해 있으나, 나토의 모든 유럽 회원국이 WEU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북쪽의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남쪽의 그리스와 터어키는 제외되어 있다.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제약들이 지금까지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토내에서의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대한 견해차이다. 모두 나토가 유럽의 안보에 핵심적이라는데 동의하고, 모든 제안들은 나토의 결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Delors씨는 나토내부에 굳건한 유럽의 기반을 두어 미국등과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며, 범대서양 결속의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골치거리이다.

WEU의 사무총장인 Wim van Eekelen씨는 보다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는 별다른 마찰없이 WEU가 나토에 편입될수 있는 실질적인 안(案)을 만드는데 전력(全力)을 기울였다

이를 위한 기초는 WEU를 부위셀로 옮겨 나토 본부와 같은 장소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양 조직에 모두 속해 있는 회원국의 상임대표들은 이중(二重)의 기능을 담당할수 있다. 즉 그들은 나토와 WEU 회의에 모두 참석할 것이다. 국내, 국제적인 임무로 「점입」하고 있는 군 고위관리들은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유럽의 신속대응군은 나토 군사조직의 일부가 될뿐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한층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상황하에서는 WEU를 위해서도 활용될수 있다.

또 EC의 장관회의와도 연결될수 있으나, 계층적인 명령체계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면, 이것이 말뿐인 조직으로 될 위험성도 있다.

유럽중심의 움직임은 프랑스가 주도하고 스페인과 벨기에가 지지하고 있다. 이들 모두

미국의 우위에 대한 조바심을 저변에 깔고 있다. EC의 유럽통합에 헌신적이고 이를 위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국인 독일은 이를 가속화하고, 프랑스-독일의 관계도 강화할수 있는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처럼 독일도 그 결과로서 나토의 약화는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이며, 네덜란드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양국은 이를 범대서양 결속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어떠한 유럽 기구도 나토내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이유는 다르지만, 공식적인 WEU-EC 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완전한 유럽 통합을 허황된 꿈으로 보고 있으며, 완전통합의 강력한 지지자인 네덜란드는 이 결합을 자국의 안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양국은 유럽을 위한 미국의 기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확고한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의회나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약화시킬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

유사시 범대서양 증강전력에 가장 의존하게 될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터키 등

은 미국의 변함없는 개입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어떤 제안도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은 나토내 유럽국가의 의견을 반겼으나 나토가 유럽과 미국간 차이점을 해결하는 조직이 되거나, 또는 방위와 억제력을 위한 다른 기구로 대체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서 더욱 강력한 유럽기반을 유럽의 공통적인 방위부담 분담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도 공통의 입장은 많이 있다. 비록 소련의 위협은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이러한 진전이 전반적인 신뢰를 구축할 정도는 아니다. 겉프전을 통해서도 유럽내 상당규모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및 통제력을 갖춘 협의의 내지 의사결정조직의 필요성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에게 입증되었다.

나토는 현재 장차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조직을 구축할 전략검토를 행하고 있다. 독일에 주둔하는 다국적 신속대응군은 제안된 육군 조직중 하나이다. 이는 유럽 전체가 나토에 기여하는 것이 될수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유럽의 공통방위기구라는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나토 군사조직의 실체를 유지할수 있는 것이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해 더 넓은 의미의 결속이 생겨날수 있다.

나토는 참가국들의 자유와 복지에 대한 위협이라는 분명하고 폭넓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태동되었다. 나토는 전적으로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적인 기구이다. 나토내부의 유럽 그룹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회원국들의 국내 이해관계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을 태동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의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煥) (Miltech 91/4)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후보자의 공약

어느 작은 마을에 선거유세를 온 후보자가 말했다.

『저에게 표를 주시면 이 마을에 고속도를 건설할 것이며, 다리도 하나 세워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주민 한사람이 따졌다.

「우리 마을에는 강이 없는데요」

그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후보자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강(江)을 하나 만들어 드릴테니까요』